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등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遺子滿贏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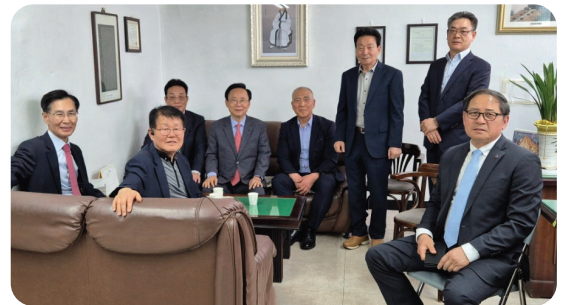
제13대 대종회 신임 집행부 지파종회순회 방문 및 상견례 성료



충희공종회·광릉부원군파종회



문경공파종회



광천부원군파종회



광원군파종회



좌의정공파종회



관찰사공종회·참판공파종회·좌통례공파종회

1. 화합을 향한 첫걸음, 문을 열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며 완연한 봄의 활기를 띠던 지난 5월, 대종회는 가문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정기 총회를 통해 대종회의 중책을 맡게 된 주영 대종회장과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소통'과 '현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대종회의 발전은 결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파종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영회장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다. 이에 신임 집행부는 출범 직후 각 지파종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종회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순회 방문 및 상견례 일정을 전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가문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대종회와 지파종회가 손을 맞잡은 이번 소통의 여정은 5월 8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집행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각 지파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정성 어린 인사를 건넸고, 사정정상 대면 방문이 어려웠던 지파의 회장단은

대종회 사무실을 흔쾌히 내방하여 성황리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2. 발로 뛰는 소통, 사흘간의 따뜻한 여정

집행부의 순회 방문은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지 않고, 가문의 대소사를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깊이 있는 자리로 채워졌다.

5월 8일을 시작으로 12일과 13일까지 이어진 사흘간의 일정 동안 주영 대종회장과 집행부는 총 7개 지파종회를 비롯해 충희공종회와 관찰사공종회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각 지파의 보금자리를 찾을 때마다, 지파 임원진과 종원들은 신임 집행부를 따뜻한 반수와 환대로 맞이해 주었다.

각 지파 사무실에 마주 앉은 종원들은 서로의 건강을 묻고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사인공파종회, 문숙공파종회, 목사공파종회의 회장님들은 대종회 발전에 힘을 싣고자 직접 대종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다. 멀리서 찾아와 준 지파회장님들을 맞이하며 주영 대종회장은 깊은 감사의 뜻

을 전했고, 대종회 사무실은 이내 종친간의 정과 따뜻한 답소로 가득 찼다.

방문과 내방의 형식은 달랐지만, 선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승조돈목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모두가 하나였다.

3. 미래를 여는 세가지 약속, 그리고 비전의 공유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주영 대종회장은 앞으로의 임기 3년 동안 대종회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굵직한 3대 핵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 수도빌딩 재건축 사업

대종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재정적 자립의 기반이 될 '수도빌딩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주영 회장은 단순한 건물의 신축을 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대종회의 미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원들이 언제나 찾아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전자족보 구축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젊은 세대들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뿌리를 쉽게 확인하고 가문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자족보(인터넷 족보)' 고도화 및 정비 사업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해 전세계의 광주이씨 종원들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디지털 매개체가 될 것이다.

3) 둔촌선조님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준비

우리 가문의 기틀을 다지신 위대한 어른,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조님의 탄신 7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앞두고, 이를 전 종원의 축제이자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행사로 봉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학술 세미나, 기념사업, 화합의 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선조님의 고결한 학문과 충절의 정신을 오늘날에 재조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영 대총회장의 열정적인 설명에 각 지파회장단과 임원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대총회의 혁신적인 발걸음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4 귀를 열어 가문을 듣다, 건의사항 수렴과 화합의 만찬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진행된 대화의 시간에서 주영 대총회장은 각 지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각 지파에서는 종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청장년층의 종회 활동 유입 대책, 그리고 각 지파의 행사에 대한 대총회 차원의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주영회장은 제기된 의견들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가며, '각 지파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총회 운영에 반영하고, 늘 문을 열어두어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겠다' 고 약속했다.

공식적인 대화가 끝난 후에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상견례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모두 광주이씨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총회와 지파 간의 벽을 허물고 끈끈한 정을 나누

는 감동적인 화합의 장이 연출되었다.

5. 18만 종원이 하나 되는 날을 향해

이번 5월의 순회 방문과 상견례는 단순히 신입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는 인사의 자리를 넘어, 대총회와 각 지파종회가 신뢰를 가꾸고 미래를 향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소중한 신호탄이었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주영 대총회장의 리더십과, 이에 따뜻한 신뢰와 성원으로 화답해 준 각 지파종회의 모습에서 우리 광주이씨 가문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수도빌딩 재건축, 전자족보 구축, 그리고 둔촌선조님 탄신 700주년 기념 사업까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도약의 과제들은 대총회의 힘만으로는 이를 수 없다. 이번 상견례에서 보여준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18만 모든 종원이 한마음 뜻을 모은다면 능히 위대한 가문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열어 짓힐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총회 신입 집행부의 앞날에 종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총회 단신

대총회 주영회장 등 신입 집행부 시조묘소 성묘



광주(廣州)이씨 대총회(회장 주영)의 2026년 신입 집행부가 지난 5월 4일(월) 영천 시조(휘唐) 묘소에 성묘를 다녀왔다. 대총회장으로 재추대 되신 주영회장을 비롯하여 새롭게 임명되신 주홍 상임부회장, 용문 재무이사, 종덕 문화이사과 재선임되신 양재 총무이사가 함께 참석하였다.

주영 대총회장은 시조위에 헌작하면서 대총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무사히 잘될 수 있도록 선조님이 도와달라 고하였으며, 주홍 상임부회장도 양재, 용문, 종덕이사도 합동으로 헌작하고 신입 집행부가 합심하여 종사일을 잘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하였다.

칠곡종회(회장 승호)에서도 대총회 집행부의 시조묘소 방문을 환영하고자 함께 참석하였으며, 승호 칠곡종회장과 태동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장도 함께 헌작하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숭조정신을 다졌다.

이날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26년 정기회의'에 주영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위원들과 관리인의 시조묘소관리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면서 당면 사항들은 대총회와 시조묘소수

호관리위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일회 이수담 서화전



일회 이수담 종친의 서화전이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일회 종친의 오랜 시간 같고 닦은 고결한 묵향과 필력이 담긴 다채로운 서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많은 문화 예술계 인사들과 종친들의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속에 성대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일회 종친의 향후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을 기대한다.

대총회 집행부, 성남문화원 신입회장단과 상견례 및 <둔촌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협의 다짐

대총회(회장 주영) 집행부는 5월 27일(수) 11시, 성남문화원을 공식 방문하여 새로 취임한 방영기 원장을 비롯한 신입 집행부와 뜻깊은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성남문화원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둔촌선조님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만남은 오찬을 겸한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대총회 집행부는 성남문화원 측에 둔촌선조님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의 송고한 취지와 구체적인 방향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성남문화원 측은 '둔촌선조님은 성남의 자랑스러운 유택(묘역)이 자리한 곳이자, 성남의 역사와 정신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또한, 향후 구성될 기념 사업 태스크포스(TF) 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번 행사가 성남 시민과 종원 모두가 함께하는 성대한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선조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커다란 결실을 거둔 자리였다. 앞으로 대총회는 성남문화원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둔촌선조님의 높은 학문적 성취와 고결한 덕성을 널리 알리는 700주년 기념 행사를 더욱 내실 있고 품격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 광릉부원군(諱 克培)묘소 환경 미화 작업 실시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6년 5월 20일(수) 선조님 묘역을 비롯해서 후손 묘역 9기에 대하여 환경 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종회 집행부를 비롯해서 종친 10명이 참석하여 별초와 잡초제거 작업, 묘역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일찍 묘소에 도착한 후손들은 인원을 분산하여 신도비 각 그리고 계단 청소, 행장판 청소, 묘소 잡초제거 작업을 하였다.

작업을 모두 마친 일행은 정성껏 준비해간 주과포를 진설하고 참배를 드리며 선조님들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였다. 끝으로 이날 참석한 종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 애국지사 묘역 참배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26년 5월 31일(일) 애국지사(단암 이용태, 여산 이용준, 동초 이종건)께서 영면하고

계신 대전국립 현충원을 찾아 송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재경화수회 용두 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전 회장, 응재 총무이사, 삼봉 종회 종두 회장, 영래 총무이사, 오봉 종회 시하 총무이사, 참판공파 종회 응호 부회장, 그리고 본 종회에서 만재 종길 부회장, 화수회 종봉 회장, 이언공 종회 주돈 주손, 종철 산악회 전 회장 이밖에도 대전 해주목사공 종회 익재 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종친 15명 등 50여명의 종친이 참석하였다.

일행은 참배에 앞서 문수 총무이사의 진행에 따라 참석자 소개와 본 종회 만재 부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추모사, 충희공종회 경래 전 회장, 익재 회장, 삼봉 종회 종두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그리고 문수 총무로부터 지사님 활동에 대한 약력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참배 시간을 가졌는데 제1묘역 단암 용태 지사님에 대한 헌화는 대종회 주영 회장이 헌화하였고, 아우인 여산 용준 지사님께는 본 종회 만재 부회장이, 동초 종건 지사님에 대한 헌화는 삼봉 종회 종두 회장이 참석자를 대표해서 헌화하였다. 또한 본 종회 고문을 역임한 용진님에 대한 참배는 별도로 진행 되었다.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는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사님들의 송고한 조상님 송조와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현충원을 찾아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대전 해주목사공(諱 萬亨) 묘소 참배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는 2026년 5월 31일(일) 해주목사공 선조님 묘소를 찾아 분향 참배하였다. 이날 애국지사 참배를 마친 후 일행은 해주목사공종회(회장 익재) 집행부의 안내에 따라 해주목사공 종회를 방문하였다. 일행은 시원한 음료수를 음용하며 용복 총무이사로부터 종회

운영 상황을 설명 들었다. 이어서 익재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주영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문수 총무 이사로부터 해주목사공 선조님 행적 소개가 있었다.

해주 목사공 휘 만형(諱 萬亨1646 - 1702)선조님께서는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7대 후손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익릉 참봉, 건원릉 참봉 함열 현감, 충주목사와 해주목사(정3품)를 역임하셨다. 증직(贈職)이 이조참판(吏曹參判)이시며 유고집 4권이 있다.

묘소에 도착한 일행은 정성껏 준비해간 제물을 진설한 후 삼봉 종회 영래 총무 이사의 약식 홀기로 대종회 주영 회장이 분향 헌작하였고 참석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선조님께 참배를 드렸다.

행사를 모두 마친 일행은 해주목사공종회에서 마련한 오찬 장(상호 화담)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송조 돈목의 시간을 보낸 후 귀경하였다. 끝으로 모든 준비를 정성껏 마련하여준 해주목사공종회 익재 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종친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대사헌(諱 世彌)공계 검단 이언공 종회

둔촌 선조님 묘역 방문

광릉부원군파 검단 이언공 종회(회장 주훈)에서는 2026년 5월 31일(일)경기 성남시 소재 둔촌 선조님 묘역을 방문하여 참배를 드렸다. 이날 아침 일찍 종회 사무실에 모인 40여명의 종인들은 차담회(茶談會)를 가진 후 전세 버스에 탑승하였다. 오전 9시에 출발한 버스는 약 1시간 30분을 달려 선조님 묘소에 도착하였다. 둔촌 재실 관리인 광재님이 미리 나와 일행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종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진설한 후 영

수 총무로부터 선조님 행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영수 총무의 약식 홀기로(무축 단잔) 주훈 회장이 헌작하였고 참석자 모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참배를 드렸다.

참배를 마친 일행은 묘전에서 음복하며 화기에 애한 가운데서 덕담을 나누고 선조님 음덕을 듬뿍 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를 마친 일행은 역사 기행으로 다음 목적지인 남한산성을 찾기로 하였다.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더불어 한양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조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병자년에 청나라의 군대가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할 당시 조선은 힘이 미약하여 당시 임금인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군사는 45일 동안 항전을 하였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강화도 함락 소식과 함께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인조는 패배 후 삼전도 항복 선언식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삼궐구고두례(3번 무릎을 꿇고 절하며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로 굴욕과 치욕적인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다. 한편 일행은 남한산성에 도착하여 성곽과 수어장대 등을 돌아보며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장시간 탐방을 마친 종인들은 인근 맛 집(두부공방)을 찾아서 맛있는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송조 돈목의 시간을 보낸 후 이날 행사를 모두 종료하였다. 끝으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둔촌 선조님 묘역 등을 숭선한 광재 현종께 깊이 감사드린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記

문경공파종회

■ 충주청장년회에서 문경공 묘소 주변 정화작업

충주청장년회에서는 청장년회원들이 5월 31일(일) 문경공 선조 묘소 및 신도비, 그리고 문효사 주변 정화사업, 충장공 광악장군 산소 풀뽑기 작업을 하였다.



문경공 선조 묘소는 일부 청장년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을 하여 제초작업, 예초작업 풀뽑기 작

업을 병행하였으며 정화작업 후 문효사로 이동하여 먼저 참석하신 청장년회원들과 함께 문효사 정화사업 및 광악장군 산소 풀뽑기 작업을 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참석을 하여 고생하신 회원들 모두 선조님의 음덕을 많이 받으실거란 생각에 다들 흡족하게 생각을 하였다.

정화사업 후 영희회원님께서 점심으로 염소전골을 찬조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 충주청장년회장 중우 기

■ 문경공파종회 광문회(화수회) 남원 지역

사인공, 주남공 묘소 참배

2026년 5월 18일(월) 문경공파종회 광문회(회장 경래)에서는 전북 남원지역에 영면해 계시는 문경공의 손자이시며 사인공종회의 종조(宗祖)이신 사인공(舍人公, 諱 守亨) 묘소와, 문경공의 증손이시며 양호당종회의 종조이신 주남공(周南公, 諱 有慶) 묘소를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참배는 문경공파 광문회(광주이씨 문경공파 화수회) 목적인 “문경공파 후손으로써 선조의 숭덕을 받들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에 대한 충효 사상을 고양시키며 상부상조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서 참배를 못한 선대조 묘소를 찾아 뵙는 행사로, 2025년에 충남 예산에 계신 문경공파 우천공(牛泉公, 諱 若水) 선조님 묘소 참배에 이어서 두 번째 참배 행사이다.

이번 참배에는 광문회 경래 회장, 문경공파종회 종민 회장, 원재 대종회 전 상임부도유사, 용관 원로를 비롯하여 문경공파 종인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참배 행사를 빛내 주기 위해서 재경화수회 용두 회장, 윤태 총무가 같이 동행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당일 8시에 사당역 공영주차장을 출발하여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울리 사인공 선조님 묘역에 도착하니 사인공종회 병덕 회장, 양호당종회 유래 회장, 괴산에서 문경공파 광희 종손 부부, 탄수종회 영희 회장 부부를 비롯한 남원 인근에 거주하는 종친 20여명이 따뜻하게 광문회 회원을 맞이하여 주었다. 먼저 사인공 재실로 이동하여 사인공종회에서 준비한 차 떡 과일을 먹으면서 병덕 회장의 감사 방문 인사 및 사인공종회 승래 총무이사의 행장,종회 연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은 뒤 묘소로 이동하여 광문회에서 준비해 온 제수를 진설하고 초헌관 경래 회장, 아헌관 광희 종손, 종헌관에 용두 재경화수회장이 헌작하고 다 같이 선조님께 참배하였다.

이어서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영천길에 위치한 안악군수 주남공 선조님 묘소로 이동하여 양호당종회 유래 회장으로부터 선조님 행장 및 종회 연혁을 듣고, 초헌관에 원재 전 대종회 상임부도유사, 아헌관에 상훈 송덕재 회장, 종헌관에 성수 동고종회 회장이 헌작하고 근처에 계시는 문경공 파조님의 증손이시며 기묘명현에 올라 있는



휘 승경(諱 承慶) 선조님, 도승지를 지내신 양호당(養浩堂, 諱 德悅) 배위 청풍 김씨 할머니 묘소도 참배하였다. 이날 5월 입에도 낮 기온이 한여름에 맞먹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회원 모두가 조상님들을 받들고 모시는 효의 정신으로 참배에 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핏줄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았다.

모든 참배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인공 양호당종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해물탕으로 늦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었던 종친간 답소를 나누면서 종인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남원의 대표 명승지인 광한루를 방문하여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춘향과 이몽룡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귀경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원 지역 종친들과 다음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행사에 동참하고자 각자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임에도 지친 기색없이 협조해 주신 모든 광문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광문회원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남원지역 사인공/양호당종회 집행부 및 종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날 보람되고 즐거운 행사를 위하여 찬조해주신 경래 광문회장, 종덕 전 문경공파종회 총무 외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인공(諱 守亨) 선조님 행적

자는 가중(嘉仲, 호는 형재(亨齋)이시며, 1470년(성종 원년) 생이시다. 사인공 선조님은 문경공 파조님의 손자이시며, 광양군(諱 世佐) 선조님의 이자이시다.

한훤당(寒暄堂, 김광필: 조선전기 성리학자) 문

하에 사사하여 문학이 당세에 우수하였다. 진사가 되시고 1492년(성종23)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을 거쳐 전랑에 뽑혔고 사성과 필선, 보덕, 장령, 집의, 수찬, 교리, 전적을 거쳐서 의정부 검상 사인 지제교에 이르렀고,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김종직의 조의제문) 때 멀리 귀양 갔다가, 1504년(연산군 10) 5월 30일 갑자사화 때 부친이신 광양군 선조님의 4형제(諱 守元, 守亨, 守義, 守貞) 모두가 참형을 당하였다. 중종반정 후 도승지로 증직을 받았다.

초장지는 충청북도 영동 거문달동이였으며, 묘 같은 전한 양백해가 지었다. 1966년 10월에 현재 사인공파의 세거지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울리 산 87 로 천장하였다. 배위는 숙부인 영동김씨 이시고, 계자(系子)에 예조정랑공이신 종경(諱 宗慶, 휘 수원 선조님 이자) 선조님이다.

안악군수 周南公(諱 有慶) 선조님 행적

선조님의 자는 응길(應吉), 호는 주남이시다. 선조님은 1499년(연산군 5) 4월15일에 탄생하시었으며, 문경공 파조님의 증손이시고, 광양군(휘 세좌) 선조님의 장자이신 諱 守元 선조님의 5형제 중 4자이시다.

백씨(諱 延慶, 탄수선생)와 같이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평소 몸가짐이 매우 근신하고, 가정을 거느림에 법도가 있으며, 형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우를 벗처럼 사랑하며, 모든 수종자를 동기간처럼 여기니, 동고 선생께서 향시 그의 효도와 우애를 칭찬하여 존경하고 중히 여겼다. 갑자사화 때 가문이 흑독히 화를 당하는 시기에 영화의 길에 나아가갈 뜻을 접고 오로지 경전 연구에 힘써 최고의 원리를 구하기 위하여 퇴계와 남면 등 제현들과 도의의 벗을 삼았고 그들이 학문이 고명하다고 칭찬하였다.

중종 계묘년에 현량으로 추천되어 사헌부 지평

과 예조정랑을 제수 받으시고, 권신등 간신에 배척되어서 외직 청도와 육계 현감을 거쳐서 안악 군수를 지내시면서 부임한 곳마다 백성들이 편안하니 청백의 칭함을 받아 세 번이나 동장을 차고 후한 포상을 받았다.

1558년(명종13) 5월4일에 안악 관아에서 즐하니 향년 60세이셨고, 군민들이 달려와 슬피 울었고, 운구하는 날에 좌우로 도열하여 울며 전송한 자가 수리에 뻗었다.

1570년(선조 3)때에 경연관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세자시강원 보덕으로 추증 되었으며 예장을 명하여 치제하였다. 배위는 증숙부인 경주김씨 이시며, 계자로 동고상공의 3자 양호당공(諱 德悅, 도승지)이시다.

- 문경공파종회 총무이사 종한 기록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諱 克亨)선조 서세 532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천부원군종회(회장 종두)에서는 2026년 5월 11일(음 3월 25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29-3소재 부조묘(廣川祠)에서 광천부원군(諱 克亨)선조님과 정경부인 청풍김씨 서세 532주기 不遷位祭를 본손과 방계손 100여명이 참석하여 경건함에 승조의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였다.

내빈 소개에 이어 종두 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대종회 주영회장을 비롯한 지파 회장과 집행부와 종친 등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불천위제를 모시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불천위제는 선조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학문과 덕을 기리고 가문의 화합을 되새기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엄숙하게 제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서 조상님의 음덕을 듬뿍 받아가셔서 건강하시라는 인사 말을 하였다.

이어진 대종회 주영회장의 축사에서서는 선조님은 충희공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시고 일찍이 재능을 발휘하여서 관직에 진출 문무를 겸비한 관료로서 여러 공적이 있지만 조선 재정의 지참서라 할수있는 식례횡간(式例橫看)을 최초로 찬정(撰定)하셨고, 병조판서등 여러 판서를 거치시면서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우셨기에 우리후손들은 제례를 통하여 선조님이 남기신 정신을 사모하고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이 면면히 이어갈수 있는 실천규범으로 잘 정립되는 불천위제가 되었

으면 하는 의견과 함께 참제자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본 제례에 앞서 불천위제를 지난해까지는 서원에서 하는 추모제와 비슷하게 봉행하였으나, 불천위제는 기제(忌祭)라는 인식하에 이번 제례부터 기제 형식으로 봉행하겠다는 설명과 더불어 분정에는 초헌관에는 본손인 종두회장, 아헌관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관에는 좌의정공파 근환 회장께서 헌작 하였고, 집례에는 영래, 축관에는 종구, 집사에는 정훈, 성수, 종빈, 정수 종인이 수고해 주었다.

광천부원군(諱 克亨) 서세532주기 불천위제에 대종회, 충희공종회, 관찰사공 종회, 광릉부원군 파종회, 문경공파종회, 광원군파종회, 좌의정공 파종회, 참판공파종회, 좌평공파종회, 문숙공 파종회, 동고상공종회, 승덕재공종회, 도정공종회, 충민공종회, 재경화수회 회장 용두, 前이언공 종회장 주돈...등이 향족대를, 충희공 종회와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 꽃바구니를, 본손 문정종회에서 제주1박스를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비예보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끝낸후에 비가 내려서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듯, 비가 내려서 돌아 가시는 길에 불편이 많으실텐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 드린다.

광천부원군(諱 克亨) 행사

광천부원군 선조님께서는 자는 경위(景攝), 호는 삼봉(三峯)이시고 1431년(세종13)에 忠愍公



(諱 仁孫)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셔서, 1494년(성종25)에 64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

공께서는 1451년(문종1년) 20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셔서 종묘서녹사(宗廟書錄事)가 되시고, 1456년(세조2년)에 문과급제를 하셔서 1468년(예종1년)에 익대공신 2등에 책록되면서 광천군에 봉해졌고, 이듬해 도승지를 거쳐 1470년(성종1년) 이조판서에 올라 국가경비의 출납기장법인 식례횡간(式例橫看)을 최초로 찬정(撰定)하셨다. 1471년(성종2년)에 좌리공신 3등에 녹훈되었으며, 호조판서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482년(성종13년)에는 우참찬으로 정조사에 임명되어 명나라를 다녀왔으며 병조판서, 지경연사, 형조판서, 좌참찬을 지내셨다. 1484년 동지성균관사에 제수되어 문묘(文廟)중수에 크게 기여하셨고, 1488년 한성부판윤, 1492년에는 국가행정법인 대전속록(大典續錄)을 편찬하는 등 공직 판중추부사에 오르시기까지 거의 44년간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우셨으며 사후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시고 광천부원군에 봉군되었으며, 시호는 공장이시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영래 기록

광원군파종회

■ 장렬공 서세 415주기 불천위제 봉행

서기 2026년 5월 30일(토) 장렬공서세 415주기를 맞아 도정공 종회건물인 광덕빌딩 6층의 사당에서 오전 11시부터 불천위를 봉행하였다. 식전행사로 외빈 소개를 하니 좌의정공과 같은날 불천위가 거행됨에 지파 종회장님들은 좌의정공 불천위에 참석하시고 장렬공 불천위에는 부회장 또는총무님들이 참석하였다.

광릉부원군에서는 문수총무 문경공에서는 종민회장과 주병 前대종회 문화이사, 동고종회 성수회장님 광천부원군에서 영래총무, 광원군에서 용춘 재무유사 도정공의 큰형님 종회인 부사공



에서 용각총무 등 많은 외빈과 특히 병사공(휘 상욱) 조상님의 강진병영 선정비를 찾아주신 이원승 박사께서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내외빈 모두 30여명이 참석하여 장렬공 불천위를 봉행함에 이 모두 조상님의 은덕이 아닐수 없지 않은가. 도정공종회의 불천위는 해당 불천위 조상님의 가장 가까운 원로 세일사로 도정공 회장이 초헌관을 하기로 회의에서 정하였기에 도

정공종회를 대표하여 용철 원로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외빈대표로 도정공(휘 세륜)의 백부이신 광릉부원군종회 대표로 오신 문수총무가 격려사를 하였다.

제례분정에는 초헌관에 용철원로, 아헌관에 문경공 종민회장, 종헌관에 동고종회 성수회장, 축관에 장공 큰아들인 사복시정공 근재회장 집례에는 도정공 택재총무, 집사에 부사공 용각총무, 도정공 용각 전례유사, 도정공 종찬감사 도정공 진재 감사가 맡아서 수고하였으며 장렬공 조상의 까마득한 후배 군인이었던 이원승(준장 예편 후 카이스트 교수 10년)박사의 인사말이 있었으니 장렬공 불천위를 더욱 빛내주었으며 모두 엄숙히 불천위 봉행을 마치고 기념촬영 후 근처 풍년식당에서 덕담과 조상님의 음복을 축원하며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 도정공종회 총무이사 택재 기록

좌의정공파종회

■ 파조 좌의정공 휘 극군 선조 서세 522주기 불천위제 봉행

좌의정공파종회(회장 근환)는 지난 5월 30일 (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소재한 부조묘(不祧廟) 숭모재(崇慕齋)에서 좌의정공 휘 극군 선조의 서세 522주기를 맞아 불천위 제례를 봉행하였다.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봉행된 이날 제례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각 지파종회 회장 및 종직자, 그리고 광이의 많은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예법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제례에 앞서 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조께서는 조선 전기의 중신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으나, 연산군의 폭정속에서 억울하게 사사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훗날 역사가 바로 서면서 그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이는 한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선조를 기리는 것은 단순히 옛일을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뜻과 정신을 오늘에 이



여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회는 선조의 유덕을 받들어 전통을 바르게 계승해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선조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제례에서는 공의 평소 소신에 따라 제물을 검소하게 마련하였으며, 진설 또한 종손이 행하여 오던 예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특히 공께서 생전에 기름 냄새가 나는 전(煎)을 드시지 않았다는 전승에 따라 이번 제례에서도 전을 제상에 올리지 않았다.

초헌관은 근환 좌의정공파종회 회장이, 아헌관은 주흥 대종회 상임부회장이, 종헌관은 종성 참판공파종회 회장이 맡아 헌작하였으며, 축관은 종손 계열의 근수 현종이, 집례는 시하 총무이사가 맡아 제례를 진행하였다.

행장 소개는 선조께서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리는 의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예에 따라 실제 행적과 관직, 공훈만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축문은 그동안 “기서유역(氣序流易), 침소봉영(瞻掃封塋), 지천세사(祗薦歲事)” 등의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이를 보다 실질적인 추모와 공경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축문에는 “출장삼군 위담역외(出掌三軍 威覃域外), 적심광군 위언당론(赤心匡君 危言讜論), 신계안위 위연열장(身係安危 偉然烈丈), 세사기지 추원감시(歲事既至 追遠感時)” 등의 문구를 새롭게 담아 독축함으로써 선조의 충절과 공훈을 기리고 추모의 뜻을 더하였다.

제례를 마친 후 참석한 내외빈들은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함께 하며 좌상공을 추모하고 환담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례는 광이 제 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좌의정공파종회는 앞으로도 불천위 제례를 통해 선조의 충절과 유덕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종중의 정체성을 전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근환 기

목사공파종회

■ 광주이씨 목사공파 諱 貞字元 선조 어둠의 역사

조선 관직사회 청요직인 이조 정랑에 올라 不事二君 충절을 지킨 단종복위 의거 광주이씨의 節義의 역사, 보학적 현양 시대적 소명

국민 영화라 불려지는 ‘왕과 사는 남자’ 로 ‘단종의 애사(哀史)가 온 나라에 회자되는 이 즈음, 광주이씨목사공파 선조의 이야기는 마치 단종의 비통한 죽음처럼 후손의 뇌리와 가슴에 아픔으로 사무친다. 바로 광주이씨목사공파 諱 貞元 선조의 통한의 역사 속 이야기이다.

牧使公(諱 之柔)께서는 配位가 淑人 咸陽朴氏이시고 두 분 사이에 네 분 아드님과 한 분의 따님을 두셨다. 아드님 네 분은 長子이신 一元, 次子이신 中元, 三子이신 貞元, 四子이신 季元이시다. 따님이신 廣州李氏는 義城金氏 金溪 鶴峯 金誠一의 鶴峯宗宅의 선조이신 金永命이시다. 諱 貞元 선조님은 목사공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 조선 세종代 관직에 出仕하여 조선 계유정난의 정치적 참화로 인한 단종복위 의거에 연루되어 정치와 삶의 浮沈을 겪으시는 과정에서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한채 보학적 기록마저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만이 선조님의 삶의 기록을 전하고 있어 후손된 도리로 이들 기록을 통하여 그 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조님께서서는 세종 20년(1438년)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에 문과급제 하시어 관직은 강원도 도사(都事)와 조선시대 청요직(淸要職)인 이

조(吏曹) 정랑(正郎)에 이르렀다. 이조 정랑은 정랑과 좌랑을 총칭하는 전랑(全郎)에 속하며 청요직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조선 관직사회에서 중시하는 청렴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관직이다. 이러한 중요한 직책에 따른 권한 또한 지대해서 사림 봉당정치에서 사림 봉당 세력들이 청요직인 이조 정랑 인사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것이 증폭되어 사림 봉당 세력간의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이조 정랑직은 중앙 핵심 관직에 대한 인사권과 이조의 전랑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고 이에 따라 조선시대 중앙 관직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최고 요직이었다.

이조 정랑은 조선시대 중앙관직의 언로와 감찰, 그리고 왕의 자문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인 삼사(三司) 관리의 추천 권한을 갖고 행사하였다. 삼사(三司)란 왕권과 유력 신권을 견제하는 세 기관, 곧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가리킨다.

선조님께서서는 세조代 발생한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입으셨는데 세조 2년(1456년)에 발생한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도하여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청하여 연회를 여는 자리에서 유응부와 성승(성삼문의 아버지)을 별운검(別雲劍 : 정2품 이상의 무관이 검을 차고 임금 옆에서 밀착 호위하는 임시 관직)으로 정하고 세조와 세자를 살해하고 단종을 복위하려 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상도 선산(善山)에 유배(流配)부처(付處)되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성종1년 1470년 유배에서 풀려 해배(解配)되어 성종3년, 1472년에 고신(告身 : 조선시대 관원의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을 돌려받고 복권되었다.

단종복위 의거 조선을 흔들다.

諱 貞元 선조의 조선왕조 실록 기록

첫 번째 기록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8일 戊辰 1번째 記事 1452년 明 경태(景泰)3년 ‘강원도 관찰사 김훈지가 이정원을 보내 빈전에 진향하다’

“강원도 관찰사 김훈지(金侁之)가 도사(都事) 이정원(李貞元)을 보내어 빈전에 진향하였다.”

출전: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523면

반역에 관련된 자들을 국문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니, 당직 도진무(都鎭撫)와 겸사복관(兼司僕官)이 시위(侍衛)하였다.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부르게 하고, 박기년(朴耆年)·심신(沈愼)·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 등을 끌어다 곤장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니, 박기년이 말하기를,

“다만 이심신 등 몇 사람 외에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다시 국문하니, 박기년이 또 말하기를, “매부 봉여해(奉汝諧)도 역시 그 일을 알고, 김질(金礪)도 또 이 음모를 알고 있으며, 초1일에도 역시 창덕궁 집현전(集賢殿)의 모이는 곳에 갔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봉여해가 네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봉여해가 말하기를, ‘나도 따르겠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실행하려던 방법을 다시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달 그믐날 봉여해에게 그 일을 말하였더니, 봉여해가 말하기를, '내가 사옹원(司饔院) 별좌(別坐)로 칼을 차고 들어가니, 만약 막는 자가 있으면 곧 찌르겠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초2일에 너와 심신이 말하기를, '어제 창덕궁에서 모르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고 하였는데, 너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없었고 성삼고(成三顧)· 김질(金質)· 최득지(崔得池) 등의 무리였는데, 전에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였다.

심신에게 물기를, "대역죄는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대로 당파를 모조리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박팽년 등과 비록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나, 항상 신이 입을 삼가지 못한다 하여 왕래하며 모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의 청하여 부른 사람은 이정상과 이지영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자주 모여 활을 쏘았으니, 더불어 아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심신이 대답하기를,

"다른 곳에서 모여서 활을 쏘는 적은 없고, 다만 정언(正言) 유계분(柳桂芬)의 집에서 <활을 쏘았는데> 동료이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모였던 사람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정상의 종형 정랑(正郎) 이정원(李貞元)과 봉교(奉敎) 최한보(崔漢輔)· 대교(待敎) 이문환(李文煥) 등 10여 인입니다."

하였다. 물기를, "이정상이 이정원과 말을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먼저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시신(侍臣)들에게 말하기를,

"유계분은 활을 쏘자고 창언(倡言)하였고, 또 유성원(柳誠源)의 형의 아들이니, 이 사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하고, 또 이정상과 이지영을 곤장을 때리면서 심문하니, 고하기를,

"이정원(李貞元)· 이문환(李文煥)· 사경(司經) 정효상(鄭孝常)· 직장(直長) 박시형(朴時衡)· 최숙손(崔淑孫)· 이효종(李孝宗)· 이지영의 형 이말생(李末生)의 처남 정관(鄭冠) 등이 모두 그 일을 압니다." 하였다.

이정상은 심신의 이웃 사람이고, 이지영은 유응부(俞應孚)의 사위 이의영(李義英)의 아우였다. 또 권전(權專)의 아내 아지(阿只)에게 물기를,

"권자신(權自慎)이 너의 말대로 홍주(洪州) 사람을 청하여 왔는데 【최득지(崔得池) 등이 홍주(洪州)에 살았다.】 그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물기를,

"네가 상왕(上王)에게 아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위지(河緯地)와 성씨(姓氏)가 성(成)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였다.

또 판수[盲人] 나가을두(羅加乙豆)에게 물기를, "몇 사람이 몇 번이나 와서 점을 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봉보 부인(奉褙夫人)이 사람을 시켜 물기를, '부엉이[鸛鷀]가 대궐 북쪽에서 우니 무슨 까닭이나?' 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였습니 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상왕(上王)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오래 지 않아 왕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 다." 하였다.

또 시녀(侍女) 춘월(春月)과 총개(蟲介) 등에게 물기를,

"누가 이 일을 알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초하룻날 아가지(阿加之)가 우리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바깥 사람들이 장차 우리 임금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기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나? 그렇다면 언제쯤 한다는 말이나? 하니, 아가지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가 끝난 뒤에 하려는 것이다.' 하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상장(上將)은 반드시 직계가 올라가 금띠를 띠게 될 것이다.' 하였고, 그 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장(上將)이란 아가지의 남편 이오(李午)를 가리킨 것이다.

출전: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7책 138면

의금부에 성희·성조·성연·권경해 등을 벌 할 것을 명하다'

의금부(議禁府)에 전지하기를,

"성희(成熺)·성조(成照)·성연(成然)·권경행(權景行)의 고신(告身)을 거두어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고, 이정원(李貞元)과 조철산(趙哲山)의 고신도 역시 거두어 먼 지방에 유배시키고, 신이중(辛以中)은 제주(濟州)의 <관노로>, 박휘겸(朴搨謙)은 거제(巨濟)의 관노(官奴)로 붙이고, 성구연(成九淵)·홍택(洪澤)·조주(曹注)·이원효(李元孝)·최종말(崔終末)·박장수(朴長守)는 변방 고을의 관노로 길이를 붙이게 하라." 하였다.

출전: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B면 【국편영인본】 7책 140면

의금부에 전지하여 노비로 삼거나 총군·안치한 죄인을 놓아 보내라고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에게 내려 준 난신(亂臣) 이유기(李裕基)의 아내 설비(雪非), 딸 이가질구지(李加叱仇之)·이말비(李末非)·이막금(李莫今), 우참찬(右參贊) 황효원(黃孝源)에게 내려 준 이유기의 딸 이소근 소사(李小斤召史), 선산(善山)에 부처(付處)한 이정원(李貞元), 서흥(瑞興)에 안치(安置)한 고승익(高承益)·고승

후(高承厚), 강진(康津) 관노(官奴)로 정속(定屬)한 강효문(康孝文)의 형(兄) 강효성(康孝誠), 아우 강효순(康孝舜), 강효문의 아내 미동(未同)이 보수(保授)한 첩(妾)의 딸 강효금(康孝今), 좌승지(左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내려 준 강이경(姜利敬)의 아내 말비(末非), 말비가 보수한 아들 강금정(康今丁), 딸 강알금(姜諷今)·강세금(姜世今), 신씨(愼氏)가 보수한 강이경의 딸 강종금(姜終今), 해남(海南)에 안치한 강이찬(姜利讚)·강이온(姜利溫), 김효진(金孝震)이 보수한 강명중(姜命重), 영암(靈巖)에 안치한 강이인(姜利仁)·강이순(姜利順), 순천(順天)에 안치한 강이성(姜利誠), 사천(泗川)에 안치한 강이흥(姜利興)·강이공(姜利恭)·강이행(姜利行), 하동(河東)에 종[奴]이 된 윤말손(尹末孫), 거제(巨濟) 관비(官婢)로 정속(定屬)한 춘비(春非), 전주(全州)에 주접(住接)하는 어미가 보수한 난생(卵生), 호비(戶婢) 석비(石非)가 보수한 억정(億丁)·만정(萬丁), 영암(靈巖)에 안치한 허씨(許氏)가 보수한 연동(連同), 나주(羅州)에 안치한 조치(趙治)·조맹근(趙孟根)·조계근(趙季根), 한산(韓山)에 충군(充軍)한 이계명(李季明), 평산(平山)에 종이 된 경유공(慶由恭), 해남(海南)에 종이 된 김효조(金孝祖), 순천(順天)에 부처²⁾한 조철산(趙哲山) 등을 놓아 보내고, 성주(星州) 관노(官奴)로 영속(永屬)한 양유원(楊有源)·양득원(楊得源)·양계원(楊繼源)은 본주(本州)에 안치²⁾하고, 장례원(掌隸院)에 정속한 어(嫗)의 여종[婢] 건이(件伊)·사월(四月)은 제가 짓먹여 기른 어(嫗)의 딸 수리(修理)와 유아(乳兒)에게 주게 하라." 하였다.

출전: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24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488면

[註] 1) 부처(付處) : 형벌의 한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고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 중도 부처(中道付處).

[註] 2) 안치(安置) : 죄인이 귀양을 간 곳에서 다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제한 당하던 일.

이세문·박효충·이정원·정철건의 고신을 돌려주다

이조(吏曹)에 전지하여, 이세문(李世門)·박효충(朴孝忠)·이정원(李貞元)·정철건(鄭鐵堅)의 고신(告身)을 돌려 주었다.

출전: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15장 A면 【국편영인본】 8책 636면

諱 貞元 선조는 不事二君의 충절로 단종복위 의거의 被禍로 고신(告身)을 삭탈당하고 경상도 선산(善山)에 부처(付處)되는 정치적인 화를 입어 생의 마지막 과정에 대한 기록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묘비명 또는 표석, 묘역조차 전해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 조명과 광주이씨의 보학적 조명에서 소외된 채, 어둠 속에 가리워진 채로 6백년 넘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광주이씨의 역사에서 不事二君의 道學的 節義를 지킨 선조의 기록과 행장마저 수습되지 못하고 이 시대 후손들의 현양정신마저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에 부끄럽다.

- 목사공파총회 총무이사 종익記

관찰사공종회

■ 관찰사공종회 화수회, 원주 소금산 야유회 다녀오다

관찰사공종회 화수회는 5월 20일(수) 많은 종인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소금산(강원도 원주) 야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집행부의 걱정이 컸으나, 오직 조상님의 지극한 음덕 덕분인지 당일에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렸다.

종인들은 소금산의 명물인 케이블카에 몸을 싣

고 수려한 풍경을 감상했으며, 아찔한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를 함께 건너며 즐거운 산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산행은 연로하신 어르신 종인분들이 많아 집행부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걱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어르신들께서는 오히려 청년 못지 않은 활기찬 모습과 지치지 않는 기상으로 긴 코스를 한 분의 낙오도 없이 끝까지 완주했다.

어르신들의 강건한 모습에 힘을 얻은 참석 종인 모두는 깊은 기쁨과 감동을 느꼈으며,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과정속에서 송조(崇祖)와 돈



목(敦睦)의 정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이사 종우 기

영천 시조(諱 唐) 묘소를 수호하는 사람들

광주(廣州)이씨의 시조(諱 唐) 묘소는 관향인 광주(廣州)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광릉골에 있다. 광주이씨 시조이신 이당은 고려말 국자감(國子監)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5명의 아들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크게 출세함으로써 조선조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그중 둘째 아들이신 둔촌 이집 선생은 고려말 정몽주 등과 함께 높은 학문과 절개로 이름을 날렸다. 둔촌 이집은 고려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이승인(李崇仁) 등과 깊이 사귀었으며, 1368년 공민왕 때 국정을 전횡하던 신돈(辛旽)을 논박하였다가 체포령이 내려지자 아버지를 모시고 친구 최원도가 있는 영천으로 피신하여 지내다가 신돈이 실각된 후에 돌아왔다. 피신한 이듬해인 1369년 이집의 부친인 이당이 다락방에서 돌아가셨다. 최원도는 자기 모친인 영천이씨의 묘소 아래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는데 그곳이 바로 광주이씨 시조묘소이다.

이런 연유로 오늘날까지 광주이씨와 영천최씨 두 가문의 후손들은 선대의 각별한 우의를 생각하면서 묘제를 지낼때면 서로 상대방의 조상 묘소에 참배하는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00여년 전에 친구인 둔촌할아버지 부자를 숨겨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영천최씨 최원도의 제실인 나현재 보수공사를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지원하기도 하였다.

영천 광주이씨 시조묘는 왕의 묘가 아님에도 광릉으로 불리게 된 것은 무덤이 왕능처럼 생겼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하는데 풍수지리학계에서 조선 8대 명당으로 손꼽히며 현장 학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5만여명의 노승 솔솔이 울창한 산세는 한자(漢字)의 이끼야(也) 형세를 하고 있으며 묘소는 야(也) 중간획 중앙에 위치하고 3천여평의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다. 멀리 영천에 있는 시조묘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랜세월 많은 선조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1369년 시조묘가 안장된 이후



200여년간 영천최씨 최원도 문중에서 지켜왔으며, 1570년 칠세손 의경(宜慶)이 청도군수 재임시 묘포 위토 묘막을 마련하였으며, 1601년 영의정을 지낸 한음 이덕형(李德馨)은 도체찰사시에 시조묘에 성묘하고 초목(樵牧)을 금하였으며, 1669년 경상도관찰사인 외손(外孫) 심재(沈粹)는 묘비를 개건하고, 11세손 이조판서 원정(元禎)은 비문을 찬하였으며, 1691년 참판 담명(聃命)이 묘향(墓向)을 임좌(壬坐)로 고치고, 1736년 한성판윤 의만(宜晩)은 비문을 고쳐쓰고, 1788년 구묘막지에 묘각을 증건하였으며, 1833년 제각을 현위치에 이전하였으며, 1978년 大宗會에서 제각(祭閣)을 증수하고 1983년 묘비(墓碑)를 다시 세웠다.

대종회에서 시조묘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3년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정하여 각 지파별[사인공파 1인, 광릉부원군파 1인, 문경공파 1인, 광원군파(보성지역) 1인, 좌통례공파(칠곡지역) 5인] 추천위원 9명과 대종회 상임위원 등 총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좌통례공파 칠곡종회에서 추천하여 시조묘역을 관리하고 있다.

칠곡종회는 지리적으로 영천 시조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으며, 500여년간 시조묘를 관리해왔다. 특히 1909년 최씨 문중의 암장에 따른 재판 결과 산소부지가 영천 최씨 소유로 판결되었으며, 영천 최씨 문중은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채무관계로 경매 신청되어 산산을 영원히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속에 칠곡지역 종인들은 보성지역 집성촌 일가들과 합심하

여 성금을 모금하여 시조묘소가 있는 선산 소유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오로지 송조정신(崇祖精神)으로 시조묘소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칠곡종회와 보성종회가 합의하여 소유권을 대종회로 이관하였다.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위원장 태동(澤東). 좌통례공파, 23대손)는 지난 5월 4일 '26년도 정기회의를 영천 추원재에서 개최되었다.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주홍 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10명이 위원들이 참석하여 시조묘소에 성묘하고, 묘역과 제실 및 토지, 임야 농지 등 자산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수호관리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태동 위원장은 정기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조묘역을 관리하고 시조위 세일사 봉행에도 정성을 다할 것임을 보고했다.

상기(相基, 19대손) 총무위원의 경과보고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시조묘역 임야의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과 효율적인 묘소 별초작업, 대나무숲 제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였으며, 시조위 제실인 추원재 중건 또는 보수공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종회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당면 현안사업으로 3,000여평의 묘역 별초를 위한 승용 예취기 구입을 건의하였다.

특히 '26년도 현안사업으로 지난해 대나무를 제거한 후 나지(裸地)로 있는 임야에 소나무 묘목 500주를 심었다. 나무심기 적기(3월 말~4월 초)에 맞추어 시행코자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년생 소나무 100주, 4년생 소나무 묘목 400주를 효과적으로 안배하여 조기 식목하므로서 예산 절감과 사업성과를 동시에 이루었다.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종회 감사보고에서 위원회 운영일지 작성 등으로 종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원재 화장실 주변 무상아스콘포장 협의시행 등을 수범사례로 공표한바 있다.

- 시조묘소 수호관리위원회 총무 상기 기

승조(崇祖)와 화합의 현장, 재경화수회 성지순례 대성황

- 70여 명의 종친,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와 정을 나누다 -

재경화수회는 지난 5월 15일(금), 종친들의 결속을 다지고 선조의 숭고한 얼을 기리기 위한 '2026년 성지순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수회 신임 용두 회장, 총무 윤태, 감사 종균, 홍보 태호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첫 행사로서 총 70여명의 종친이 참여했으며, 대형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일정을 함께 했다. 당일 오전 8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사당역을 출발한 버스는 동천역 정류장에서 대종회 회장과 합류하며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여정의 서막을 열었다. 연륙의 신록이 푸르른 신선한 봄날, 버스 안은 오랜만에 만난 종친들의 반가운 인사와 담소로 활기가 넘쳤다.

첫 번째 발자취로 광주이씨 우천공(휘 약수) 묘소 참배 오전 10시경 목적지인 광주이씨 우천공 선조묘 묘소에 도착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성묘 행사는 축문 없이 세 번 술잔을 올리는 무축 3헌작(無祝 三獻爵)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거행되었다.

참배를 마친 후에는 뜻깊은 음복 시간이 이어졌다. 대종회 부회장 종위 종친이 정성껏 준비한 복분자술과 풍성한 음복 음식을 대접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배객들이 기운을 돋우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소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명당에 얽힌 역사를 되짚어 보며 다 함께 묵념으로 간단히 참배를 올리고 역사의 숨결을 느껴 보았다. 엄숙한 참배를 마친 일행은 점심 식사를 위해 수덕사 입구에 위치한 '대흥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오찬을 즐기며 종친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다.

오후 2시, 점심 식사를 마친 일행은 마지막 목적지인 목은 이색 묘소에 향했다. 묘역에 들어서자 이색묘소 관리단장과 문화재 해설사가 나와 재경화수회 종친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목은 이색 묘소를 찾게 된 것은 고려말 성리학을 발전시키고 성균관 등에서 함께 공부하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울퉁한 신념으로 함께 헤쳐 나간 동반자이며, 죽는 날까지 서로를 아끼는 최고의 벗이었으며 둔촌 선조님과 목은 이색 선생의 관계를 되짚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곳에서도 선조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무축 3헌작으로 참배를 올렸다.

참배 후 내려오는 길에는 해설사의 전문적이고 흥미진진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역사적 행적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해설 덕분에 참여한 모



든 종친이 크게 만족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일행은 방문하는 묘소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소중한 추억을 사진에 담았다. 모든 참배 일정을 마친 버스는 정안 알밤 휴게소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했다. 휴게소에서는 화수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기념 선물을 개인별로 전달하였으며,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였기에 종친들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오후 7시경, 출발지였던 사당역에 안전하게 도착한 일행은 각 조별로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 동안의 소회를 나눴다. 이번 성지순례는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가슴에 새기는 동시에, 재경화수회 종친들의 두터운 화합과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성지순례 협찬금은 총 4,630,000원.

우천공(牛泉公, 諱 若水) 행장

자(字)는 지원(止源) 호(號)는 우천(牛泉) 성종 17년 1486년 7월 6일 충주 북촌에서 출생하고, 문경공 극감(克堪)의 증손이며, 관찰사공 세우(世佑)의 손자이요 목사 벼슬을 하신 자(滋)의 장자(長子)이다.

공은 일찍부터 한훤당(寒暄堂)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정묘년(丁卯年 1507)에 진사(進士)에 합격(合格)하였으며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 학문연수에 전념하시어 기묘년(己卯年)에 현양과(賢良科)로 천거(薦擧) 받았으나 과거(科擧) 보지 않으시고 북문화(北門禍)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태학(太學) 성균관(成均館) 생을 인을(引牽)하고 소수(疎首)가 되어 정암(靜菴) 조광조를 구출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궐문 앞에 나가 호곡(號哭)하니 곡성(哭聲)이 진동(震動)하였다.

중종(中宗)이 진노(震怒)하여 日, 유생들이 대

궐 앞에 와서 호곡(號哭)하는 일은 천고에 없는 일이라 하여 잡아 들이니 공은 대답하여, 옛날에 양진(楊震)이 죄수로 잡히니 태학(太學) 유생들 삼천명이 대궐에 나가 호곡(號哭)한 일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오늘의 일이야 말로 천고에 없는 일입니다. 옥에 가두어 고문을 당하니 유혈이 만면(滿面)하였다.

신사년(辛巳年)에 평해로 유배되었다가 예산 대흥으로 옮겨지고 신묘(1531)년에 예산 대흥에서 46세로 세상을 마쳤다. 선조 1년 (1568)에 동고(東臯) 영산공(嶺相公)의 소청(疏請)을 비롯하여 선조 38년(1605)에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로 신원(伸冤) 되셨다. 기묘(己卯) 명현록(名賢錄)에 올려 있고 묘갈(墓碣)이 있다.

숙종 34년 무자년(戊子年 1708)에 사림(士林)

에서 묘하에 사당을 세우고 봉향하였으며 고종 5년 무자년(戊子年 1868)에 대원군에 의해 철폐하게 된 후 경인년(庚寅年 950)에 전북 고창 사림들에 의해 해리면 사반리에 인산사(仁山祠)가 세워졌으며 정사년(丁巳年 1977)에 예산군 대흥면 우정동에 우정재(牛井齋)를 세워 향사(享祀) 이어 왔고 무인년(戊寅年 1998)에 중수(重修) 되었다.

공의 초취(初聚) 상주 박씨 부(父)는 贈戶曹判書(증호조판서) 사화(士華)이고 무육묘실전(無育墓失傳)이며 재취(再聚)의 의인 전주이씨 부(父)는 사헌(司憲府) 감찰(監察) 맹화(孟華)의 따님으로 2남을 두시고 장자는 부(斧), 차자(次子)는 성(誠)이며 묘(墓)는 대흥면 교촌리 우정동 부군쌍분(夫君雙墳) 신좌(辛坐)이다.

남연군 이구(南延君 李球, 1788~1836)의 묘소 참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위치한 '남연군 이구의 묘소' (충청남도 기념물 제80호)는 단순한 한 왕실 종친의 무덤을 넘어선다.

이곳은 조선 후기 세도정치의 틈바구니에서 왕권을 되찾으려 했던 흥선대원군의 불타는 야심이 응축된 곳이자 서구 열강의 침탈속에서 조선의

쇄국정책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세계사적 사건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현장이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가계의 대전환(한미한 종친에서 왕통의 중심으로)
 남연군 이구는 인조의 삼남 인평대군의 6대손인 이병원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1815년(순조 15)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신군(恩信君)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를 통해 영조~사도세자의 법정 왕통 가계에 편입되며 남연군에 봉해졌고, 가문이 왕위 계승권과 밀접한 핵심 종친으로 급부상했다.

생전의 행적과 관직

안동 김씨 세도정치기 속에서 처신에 신중을 기하며 사도세자의 묘소(현릉원)를 지키는 수원관, 성균관 대사성 등을 지냈다.

1828년(순조 28)에는 조선 조정을 대표하는 진하사(進賀使)의 정사(正使)가 되어 청나라 연경(베이징)을 다녀오는 등 종친의 어른으로서 중책을 수행했다.

1836년 소갈증과 신장 질환 등으로 향년 49세에

서거하여 '충정(忠正)'의 시호를 받았다.

사후의 영욕과 근대사의 전환점

2대 천자지지 이장 막내 아들 흥선대원군이 지관의 예언에 따라 왕이 나올 명당을 확보하고자 충남 덕산(가야사터)으로 묘소를 이장했고, 이후 실제로 손자인 고종이 즉위하면서 대한제국 황실의 뿌리가 되었다.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1868년) 서양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을 꺾기 위해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원군을 격노케 하여 척화비 건립 및 강력한 통상수교거부(쇄국) 정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남연군 이구의 묘소는 가야산의 아름답고 평온한 풍광에 매료되지만, 그 이면에는 가야사라



는 유서 깊은 사찰의 희생이 있었고, 나라의 운명을 쇄국과 박해라는 극단적인 소용돌이로 몰고 간 거대한 역사적 요동이 잠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권력을 향한 인간의 집념과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격동의 근대사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다.

역사의 가르침과 자연의 조화로우며 동시에 간직한 이곳은 우리가 지속해서 보존하고 연구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묘소 참배



광주이씨 재경화수회는 뜻깊은 역사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우리 대종회의 정신적 뿌리이신 둔촌(遁村) 이집 선조님과 당대 최고의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나누셨던 고려 말의 대문호이자 성리학의 대가 목은 이색(1328~1396) 선생의 묘소(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를 참배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마주한 선생의 묘소는 과연 명당의 기운이 완연했으며, 조선 전기

의 대표적인 문신인 무령군 유자광이 쓴 신도비가 세월의 무게를 품은채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우리가 이번 참배를 더욱 특별히 여긴 이유는 바로 '둔촌 선조님과 목은 선생의 각별했던 지음(知音)의 정' 때문이다.

고려 말, 공민왕의 신돈 축출 사건 등으로 어지러운 정국속에서 두 분 선조님은 학문적으로 깊이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막역한 벗이었다.

특히 둔촌 선조님께서 탄압을 피해 영천으로 피신하셨을 때, 목은 선생은 안부를 묻고 절개를 기리는 시를 지어 보내며 깊은 신뢰를 표하셨다.

7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조님의 벗이 고이 잠든 곳을 참배하니 감

회가 참으로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참배에 참여한 한 종친은 '둔촌 선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항상 목은 선생과의 아름다운 교류가 등장해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묘소 참배를 마친 후, 회원들은 인근의 유적지를 둘러보며 선조들이 남기신 숭고한 정신과 유교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이번 탐방의 감동을 나누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이씨 가문이 지녀온 고결한 선비 정신과 의리를 오늘날의 사회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이번 목은 이색 선생 묘소 참배는 단순한 유적지 답사를 넘어, 우리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수회 회원간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한산이씨 목은관을 다녀와서

오는 5월 15일(토)에 예정된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성지순례' 중 목은 이색 선생의 묘소를 뜻깊게 참배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하고자 한산이씨 목은관을 방문하였다.

사무실 입구에 걸린 장학사업 기증자 명단 동판을 둘러본 후, 이항직 사무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화수회는 둔촌 선조님과 목은 이색 선생께서 생전에 호형호제하시던 둘도 없는 명우(名友) 관계였음을 설명하며 이번 묘소 방문의 깊은 의미를 전했다.

한산이씨 대종회 소식을 이항직 사무처장은 현재 추진 중인 한산이씨 장학사업 현황과 함께, 올



해 10월 완성 예정인 디지털 족보 편찬 사업 등 대종회의 여러 주요 사안을 친절히 공유해 주었다. 미래를 위한 지속적 교류 약속으로 특히 내년(2027년) 둔촌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에 한산

이씨 대종회를 초대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기쁘게 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2028년 목은 이색 선생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앞으로 양 가문 간에 좋은 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면담 중 응두 회장께서 우리가 준비해 간 '둔촌 이집 선생 시문집'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이 시문집 안에는 둔촌 선조님과 목은 선생께서 생전에 한시(漢詩)를 주고받으며 깊이 교류하신 내용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음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나오는 길에는 한산이씨 대종회 측으로부터 '목은 이색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포함한 귀

한 도서와 선물을 받았다. 이황직 사무처장은 5월 15일 우리 화수회의 방문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목은 이색 묘역 관리단에 연락하여 만

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었다. 선조님들의 옛 우정을 이어받아 양 가문의 우

의를 다지고, 다가올 성지순례의 성공적인 개최를 확정한 참으로 보람차고 뜻깊은 방문이었다.
- 재경화수회 총무 윤태記

광주이씨산악회 우면산 둘레길 산행을 다녀와서

2026년 5월 31일(일), 푸른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주말을 맞아 광주이씨 산악회는 우면산 둘레길 산행길에 올랐다.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사당역 3번 출구에서 모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녹음이 짙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둘레길을 걷는 동안, 회원들은 그간 못다 한 담소를 나누며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웠다. 초록 빛 가득한 자연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화기에 애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산행의 하이라이트는 잠시 다리를 쉬어가는 휴식 시간에 문경공파종회 총무인 종환 종친이 모두를 위해 깜짝 마술 시범을 선보인 것이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이 펼쳐지자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던 다른 등산객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구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회원들은 눈으로 즐기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저마다 마술을 한 가지씩 직접 배우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회원들은 "오늘 배운 마술을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에게 멋지게 보여주며 자랑해야겠다"면서 기뻐했고, 덕분에 산행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마술의 여흥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긴 우리 일행은 대성사 절 입구를 거쳐 예술의전당 방향

으로 안전하게 하산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듯, 열심히 걸은 뒤에는 인근의 유명한 '앵콜 칼국수' 집으로 이동하여 정성 가득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지친 몸을 달랬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남부터미널역 근처의 분위기가 좋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커피타임을 가졌다. 향긋한 커피 향 속에서 오늘 하루의 즐거웠던 추억을 되새기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다음 산행을 약속하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귀가 길에 올랐다.

- 산악회 등반대장 윤태記

<6월 산행 안내>

- 일자 : 6월 28일(일) 오전 9시 30분
3호선 수서역 7번 출구
- 코스 : 대모산 둘레길
- 대상 : 광주이씨 종친

재경청장년회 청백리공 묘소 정화작업



재경청장년회(회장 용승)는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 가고 초여름의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했던 지난 5월 17일(일) 선조님의 은덕을 기리고, 송조

(崇祖)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침 7시, 이른 새벽부터 모인 11명의 재경청장년회 회원과 2명의 며느님들은 청백리공 선조님의 묘소(성남시 하대원동 산3-1)를 찾아 정화작업을 정성껏 완료하였다.

바쁜 일상과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묘소 주변의 아카시아와 칙닝쿨 잡풀들을 제거로 환경을 정비하고 준비해간 주과포를 진설하고 무축단잔(無祝單蠶)으로 제를 올리며, 선조님의 청백리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용승회장은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묘소 정화작업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청장년회가 중심이 되어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 회원간의 화합과 가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 고 다짐을 전했다. 땀방울 속에 조상을 기리는 효심과 종친간의 정(情)이 더욱 두터워진 의미 있는 하루였다. 초여름의 보양식 추어탕 한 그릇에 정겨운 담소를 나누고, 다음 별초를 기약했다.

- 재경청장년회 총무 용세記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으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계좌번호는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 농협은행 : 301-0290-6787-91

지로 납부는 이용자가 너무 적어 2026년 3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기존 지로 납부 이용자들께서는 기업 또는 농협은행으로 이체 부탁드립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시시오.

광주이씨대중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6年 6月 1日

<제421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주영

편집인 : 이주홍

주 간 : 이종덕

발행처 : 광주이씨대중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6년 5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종구	100,000	경기 양평	이종규	10,000	서울 금천	이진수	10,000	서울 동대문	이종찬	10,000	서울 강남
이동수	20,000	서울 강북	이종한	10,000	경기 양평	이준수	10,000	경기 이천	이종혁	10,000	서울 송파
이영래	10,000	충남 보령	이종일B	10,000	경기 양평	이금재	10,000	경기 이천	이석철	10,000	충남 보령
이정식	10,000	전북 전주	이춘재	10,000	전남 여수	이종택	10,000	경기 안산	이현수	10,000	서울 성동
이종대	10,000	대구 수성	이월래	10,000	서울 강동	이종규	10,000	서울 광진	이석화	10,000	서울 광진
이종찬	10,000	대구 수성	이용원	10,000	전남 여수	이정수	10,000	서울 양천	이석기	10,000	경기 안양
이종철	10,000	대구 수성	이양재A	10,000	서울 노원	이종섭	10,000	경기 수원	이종영A	10,000	인천 미추홀
이연숙	10,000	부산 금정	이용철	10,000	서울 성동	이동수	10,000	경기 화성	이한영	10,000	서울 중구
이종택	10,000	울산 울주	이양재B	10,000	서울 종랑	이종익	10,000	경기 양주	이경재	10,000	경기 수원
이종석	10,000	경북 구미	이용준	10,000	경기 용인	이종복	10,000	경기 이천	이종학	10,000	경기 수원
이종욱	10,000	서울 은평	이용현	10,000	인천 연수	광천부원군파 100X10,000=1,000,000			이응수	10,000	경기 성남
이화래	10,000	경기 수원	이용옥A	10,000	서울 관악	이종학	10,000	서울 송파	이영수	10,000	경기 성남
이성열	10,000	전남 화순	이용옥B	10,000	전남 여수	이영래	10,000	경기 군포	이범수	10,000	경기 성남
이경재	10,000	광주 북구	이풍래	10,000	서울 은평	이종문	10,000	경기 고양	이종영B	10,000	경기 수원
이재선	10,000	전남 보성	이성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종경	10,000	경기 용인	이종만	10,000	전남 신안
이동완	10,000	전북 전주	이창재	10,000	충북 충주	이종선A	10,000	경기 이천	이종석B	10,000	충남 아산
이종현	30,000	서울 성북	이영재	10,000	충북 충주	이석광	10,000	경기 파주	이면재	10,000	충북 청주
이남재	10,000	경기 여주	이승재	10,000	강원 원주	이윤수	10,000	서울 송파	이옥재	10,000	경기 성남
이용문	20,000	서울 강남	이용국	10,000	경기 파주	이성수	10,000	서울 성동	이경수	10,000	서울 노원
이종현	10,000	경기 광주	이우재	10,000	서울 은평	이종갑	10,000	경기 수원	이종철	10,000	충북 충주
도정공종회 56X10,000=560,000			이걸재	10,000	경기 광명	이종협	10,000	서울 성동	이용대	10,000	서울 관악
이종찬A	10,000	경기 동두천	이건재	10,000	경기 양평	이종석A	10,000	경기 남양주	이용주	10,000	충북 충주
이종택	10,000	경기 양평	석창종친회(이천) 42X10,000=420,000			이용복	10,000	충북 괴산	이성재	10,000	충북 청주
이택재	10,000	서울 은평	이은재	10,000	서울 금천	이승수	10,000	서울 강동	이종민	10,000	경기 성남
이용각	10,000	서울 종랑	이종해	10,000	경기 이천	이종선B	10,000	경기 의왕	이종빈	10,000	서울 송파
이진재	10,000	서울 강남	이인재	10,000	경기 이천	이종관	10,000	서울 송파	이종덕	10,000	경기 파주
이종찬B	10,000	경기 광명	이철재	10,000	서울 노원	이종필	10,000	경기 남양주	이용학	10,000	충북 괴산
이용택	10,000	서울 금천	이완수	10,000	경기 이천	이영수	10,000	서울 송파	이영재	10,000	대전 서구
이용노	10,000	서울 금천	이종제	10,000	경기 용인	이종안	10,000	경기 고양	이옥래	10,000	전북 전주
이근재	10,000	강원 원주	이대수	10,000	경기 이천	이종구	10,000	경기 평택	이명래	10,000	서울 서초
이용식	10,000	경기 용인	이성재A	10,000	경기 용인	이학재	10,000	경기 수원	이응래	10,000	광주 서구
이종찬C	10,000	경기 수원	이형재	10,000	인천 부평	이승재	10,000	서울 성북	이승래	10,000	광주 북구
이정재A	10,000	경기 용인	이홍재	10,000	경기 구리	이종기	10,000	충남 당진	이흥래	10,000	전북 전주
이선재	10,000	서울 종랑	이종철	10,000	경기 이천	이종수	10,000	대전 서구	이종화	10,000	서울 마포
이용휘	10,000	서울 강동	이학재	10,000	경기 안성	이석환	10,000	충남 천안	이종윤	10,000	경기 부천
이종철	10,000	서울 성동	이종수	10,000	서울 영등포	이정수	10,000	경기 광주	이명수	10,000	인천 부평
이정재B	10,000	서울 은평	이종근	10,000	경기 오산	이종흥	10,000	경기 용인	이석열	10,000	충남 천안
이훈재	10,000	충북 제천	이종학	10,000	경기 이천	이창래	10,000	전북 전주	이성길	10,000	경기 수원
이익재	10,000	서울 노원	이종섭	10,000	경기 남양주	이원재	10,000	충북 충주	이현재	10,000	경기 수원
이교재	10,000	경기 고양	이현수	10,000	경기 이천	이영재	10,000	충남 홍성	이종국	10,000	경기 안양
이만재	10,000	경기 용인	이일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찬수	10,000	서울 송파	이종영C	10,000	경기 수원
이종영	10,000	경기 동두천	이종구	10,000	경기 의정부	이성호	10,000	경기 수원	이완길	10,000	경기 부천
이필재	10,000	서울 노원	이봉재	10,000	경기 이천	이종국	10,000	서울 마포	이광재	10,000	경기 수원
이종재	10,000	충북 충주	이종윤	10,000	경기 수원	이광재	10,000	경기 수원	이종찬	10,000	경기 화성
이경재	10,000	서울 동대문	이성재B	10,000	경기 구리	이진재	10,000	서울 송파	이봉수	10,000	서울 동작
이종구A	10,000	경기 김포	이종태	10,000	경기 수원	이종건	10,000	경기 안양	이승수	10,000	세종 시청대로
이종일A	10,000	경기 하남	이관재	10,000	경기 이천	이승재	10,000	경기 수원	이만수	10,000	서울 은평
이종욱	10,000	경기 수원	이현재	10,000	서울 광진	이종혁	10,000	경기 용인	이명수	10,000	충남 아산
이완재	10,000	충북 충주	이근재	10,000	서울 마포	이종성	10,000	경기 성남	이정재	10,000	충북 청주
이봉재	10,000	충북 충주	이진재	10,000	서울 광진	이민재	10,000	서울 송파	이종완	10,000	경기 안성
이용균	10,000	충북 충주	이종관	10,000	경기 용인	이홍재	10,000	경기 용인	이만재	10,000	충북 청주
이희재	10,000	경기 고양	이택수	10,000	경기 이천	이진수	10,000	서울 송파	이영수	10,000	충북 청주
이종구B	10,000	경기 파주	이종원	10,000	경기 평택	이종학	10,000	경기 성남	이창수	10,000	경기 용인
이종호	10,000	서울 은평	이종훈	10,000	경기 부천	이종설	10,000	서울 송파	이동수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성	10,000	경기 동두천	이남수	10,000	경기 이천	이종균	10,000	서울 송파	이윤수	10,000	서울 강남
									이승재	10,000	경기 수원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